

게으름과 작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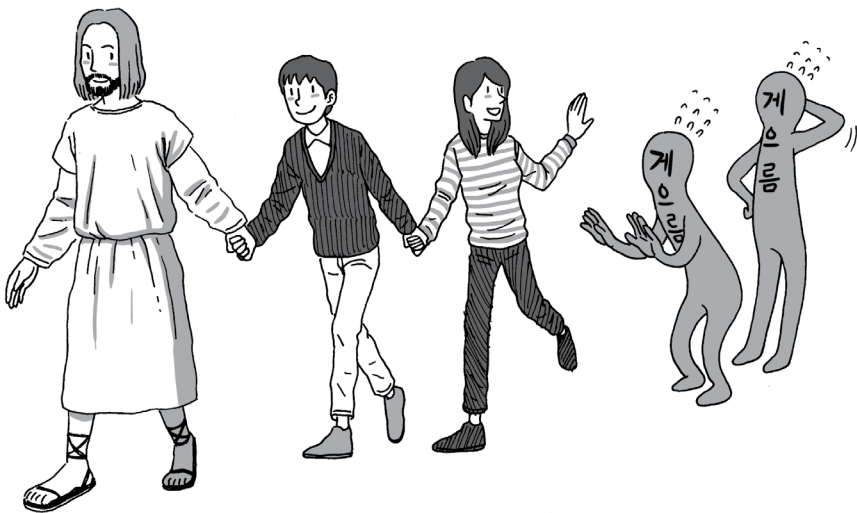
잠 6:6~11, 잠 26:13~16

찬송가 37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찬양 69장 (맑고 밝은 날)

오늘 배울



1.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름에 익숙한 것은 책망받을 죄임을 압니다.
2. 게으름과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실행합니다.



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를 얻으라 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잠 6:6~11)



을 이해하기

게으름이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알면서도 그 행할 시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내 주변의 영혼을 전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다면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세상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모든 사실과 복음을 알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잘 알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종들을 모아 놓고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 대표적인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치 못하는 것과, 알면서도 행할 시기를 미루는 게으름은 주님께 책망받을 대표적인 죄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일에 이유를 잘 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 모든 이유는 핑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모두 이루어 놓은 사실을 전하는 수고만 하는 것이며, 이것을 미루는 어떤 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게으름의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게으름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심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 22:29)

Do you see a man who excels in his work? He will stand before kings; He will not stand before unknown men. (Pr 22:29)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사업은 무엇이며, 이를 근심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게으름'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찾아보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3가지 적어봅시다(잠 24:30~34, 26:13~15).
 - ①
 - ②
 - ③
- ② 나의 생활 가운데 게으른 모습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써 봅시다.

3

성경에서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비교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잠 10:4, 12:24,27).

게으름	
부지런함	

4

나의 삶 속에서 게으른 생활과 부지런한 생활의 경험을 적어보고, 나는 게으름과 작별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써봅시다.

	
	
앞으로의 생활 :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잠 12:11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의

잠 13:4

화

잠 21:5

수

롬 12:11

목

골 3:23

금

딤후 4:10

토

벧후 1:10



나태

마틴 루터의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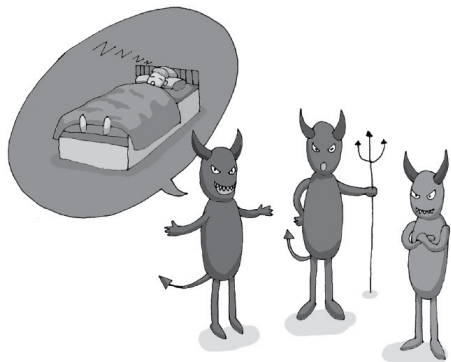
어느 날 사탄이 큰 기념제를 개최하고 그의 여러 사자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여러 가지 책임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중 첫째가 “나는 사막의 야수들을 풀어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을 습격하게 하였더니 지금은 그들의 뼈만 모래 위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했다. 그때 사탄은 “그래서 그것이 어쨌단 말이나? 그들의 영혼은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하고 꾸짖었습니다.

둘째가 보고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을 실은 배에 폭풍을 일으켜 그들을 모두 물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때 사탄은 다시 분개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어쨌단 말이나?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하고 고함쳤습니다.

셋째가 보고하기를 “나는 십 년 동안 꼭 한 사람을 택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게으르게 만들었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탄성을 지르고 지옥의 저녁 별들은 기쁨에 넘쳐 노래하였다고 합니다. 나태 즉 영적 무관심은 자기의 인격을 파멸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기쁨을 줍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해태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잠 19:15)



질문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자백”의 의미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구원이 잃어질까 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짓더라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교제)이 끊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교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해 오다가 아들이 아버지께 잘못하면 아버지를 보기가 두려워집니다.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때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벌을 면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용서해 주고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사면 받기를 또 다시 구할 필요는 없으나,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일 1:3)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구원 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 즉 사귀어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 (요일 1:6)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활에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빛과 어두움은 사귀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7)

하나님과의 사귀어 있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도 사귀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귀어 끊어져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과 사귀어 있다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때문에 교제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도무지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곧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우리는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 139:23~24)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 19:12)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활을 내어놓고 살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깨울리 하는 사람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를 깨닫기가 힘듭니다. 큰 죄를 짓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징계를 받아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생활 중에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혹 잘못된 일이 없는가 살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음판

이만하면 됐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빌 3:13~14)

단원 정리



경건의 연습

그리스도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하루를 주님 안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 매일 성경공부

우리는 매일 세끼 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여깁니다. 광야 생활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워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성경을 한번 이상 읽겠다는 결심을 하고 매일 '성경 읽기' 진도를 확인하며 성경을 읽읍시다.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이자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간구와 중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실천함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는 은밀한 장소도 필요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제는 사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를 불러 주님과 교제케 하십니다. 또한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유익한 교제를 위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하루 일과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씩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매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소중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한 세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 게으름과 작별을

게으름이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 행할 시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치 못하는 것과 게으른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리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